

제9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2의 백남준' 미디어 아티스트 이아남 작가

“내 예술활동 ‘뿌리’는 고향... 무한한 영감의 원천”

관람객 시선 붙잡기 '5분의 미학' 고전 명화에 디지털 접목 시작 각국 작가들 광주 초청 늘려 '빛의 도시' 더 빛나게 해야



이아남 작가가 지난 2일 광주시 남구 양림동 이아남스튜디오에서 열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에서 강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지금까지 창작을 해오면서 느낀 것은 내가 걸어왔던 길이 고향이라는 ‘뿌리’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미디어 아트로 세계미술계의 호평을 받고있는 이아남 작가가 지난 2일 이아남스튜디오(광주시 남구 양림동)에서 열린 제9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강사로 나섰다.

담양 출신의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로 '제2의 백남준'이라 불리며 국내외 전시 현장에서 중횡무진 활약하고 있는 이 작가는 이날 '뿌리'를 주제로 그의 어린시절과 미디어아티스트가 된 계기, 그간의 작품활동 등에 대해 들려줬다.

그는 최근 경남 산청의 예담촌을 방문한 이야기로 강연을 시작했다. 이 작가는 “최씨고가에 들렀는데 97세 할머니를 만났다”며 “굉장히 정정하시길래 비결을 물었다니 스트레스를 안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 말했다.

“할머니께서 이웃들이 자신의 험담을 해도 무시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산청에 다녀오고 나니 많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의 옛 가옥을 보면서 마음이 편안해졌고,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생각해볼게 됐다고 이야기했다. 내가 태어난 곳이 어디인지, 언제부터 창작을 시작했는지 등에 대해 고민하다보니 예술과 삶은 각각 떨어져있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담양 병풍산 앞자락에 위치한 한 마을에서 태어났다. 아침에 풀잎마다 이슬이 맺혀있고 오후가 되면 땅거미가 슬그머니 내려앉던 시골은 그에게 전부였다. 학교 후에는 친구들과 냇가에서 먹감기를 하고 밭에서 과일 서리를 하기도 했다. 고향은 무한한 영감의 원천이었고 이러한 ‘뿌리’에서 그의

‘미술’은 시작했다.

그는 입시를 위해 학원에 다니면서 학원 원장의 권유로 조각을 했다. 조선대 조소과에 입학해 미켈란젤로, 로댕과 같은 조각가들 공부하던 그는 1993년 현대미술을 접했고 이후 순천대 만화과에서 강의를 하면서 애니메이션에서 영감을 받아 오브제를 미디어에 접목한 작품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작품 앞에 관람자가 5분 이상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미술사학자 다니엘 아라스의 말이 고전 명화를 사용하는 제 작업의 계기가 됐어요. 아는 그림을 보면 일단 그 앞에 머무르잖아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5분의 미학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움직이는 명화를 작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2007년 나인갤러리 대신 뉴욕 아트페어에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작품을 팔게 됐고 그 돈으로 ‘디지털 병풍’을 제작했다. 이 작품이 키아프(한국 국제아트페어)에 출품되면서 이 작가는 화단의 주목을 받으며 이름을 알리게 됐고 2008년부터는 삼성전자로부터 TV를 1년에 100대씩 5년간 지원받아 작품활동을 이어갔다.

2014년에는 서울역 앞 서울스퀘어빌딩(대우빌딩)으로 6만 개의 LED 전구를 건물 외벽에 장착

해 대형 미디어 캔버스를 연출하면서 미디어 파사드(media pasade)를 선보이기도 했으며 2016년 구글과 진행했던 VR 미디어 아트는 VR 기기를 착용하고 가상공간에서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다. 이밖에 2017년 국립중앙도서관에 설치한 ‘책 속의 얼굴’, 2018년 조각비엔날레에서 선보였던 ‘피노키오의 거짓말’,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꽃피는 미래’, 광주 톨게이트에 설치된 ‘무등의 빛’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이 작가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탄생한 자신의 신작 시리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근 중국에 두 번 다녀왔는데, 자가격리만 10주를 했어요. 지금까지 이성을 중시하는 서구 중심의 삶을 살아왔는데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동안 과연 올바르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뿌리는 무엇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등에 대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나’에 대한 생각이 ‘생명’에 대한 사유로 이어진거죠.”

최근 서울 사비나미술관에서 열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다’전은 자신의 본질을 찾기 위해 기획됐다. 이 작가는 자신의 DNA 데이터를 추출, 이를 디지털화해 ‘시(詩)가 된 폭포’, ‘DNA 산수’, ‘반전된 빛’ 등 영상, 설치, 평면 작품으로 선보였다.

이 작가는 미디어 아트의 핵심은 ‘기운생동(氣韻生動)’이라고 말한다. “동양화 육법 중에 제 일법으로 글씨나 그림의 기운이 생생하게 약동한다는 뜻입니다. 디지털로 눈에 보이는 생동감을 만들어내고, 또 그 속에는 반대로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가치와 의미를 통해 인간의 뿌리와 근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이 작가는 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 린츠의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미국 시카고 밀레니엄파크 크라운 분수 등을 예로 들며 광주에도 이러한 랜드마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 아트가 우리 삶속에 어떻게 스며들고 있고 어떠한 활력을 줄 수 있는지 다른 나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세계적인 작가들이 광주에서 창작 세계를 펼쳐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빛의 도시’인 광주가 더욱 빛나지 않을까요.”

한편 제9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다음 강연은 오는 9일 오후 7시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리며 황농문 교수가 ‘물입의 열풍을 물고 오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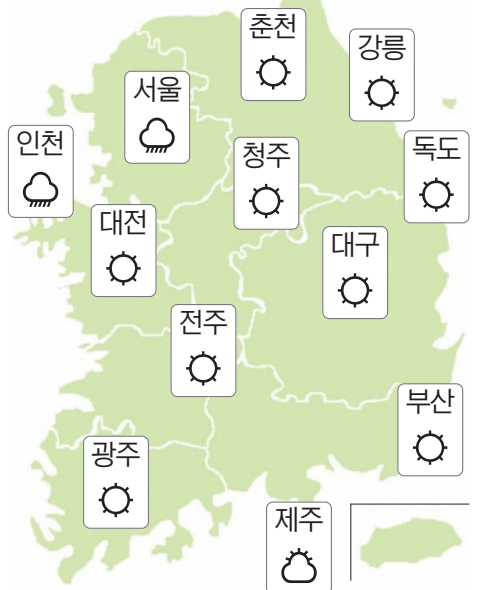
해돋이	06:56	달뜨기	05:49
해질	17:35	달지기	17:18

단풍은 비에 젖는다

고기압 가장자리 들렸다.

광주	맑음	9/21	보성	맑음	5/20
목포	비온뒤맑	12/20	순천	맑음	9/22
여수	맑음	12/20	영광	비온뒤맑	8/20
나주	맑음	7/21	진도	비온뒤맑	10/20
완도	맑음	11/21	전주	맑음	9/20
구례	맑음	6/21	군산	맑음	8/20
강진	맑음	8/22	남원	맑음	6/20
해남	비온뒤맑	6/21	흑산도	비온뒤맑	14/20
장성	맑음	6/21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서해남부	앞바다	0.5	0.5
	면바다(북)	0.5~1.0	0.5~1.0
	면바다(남)	0.5~1.0	0.5~1.5
남해서부	앞바다	0.5	0.5
	면바다(서)	0.5~1.5	0.5~1.5
	면바다(동)	0.5~1.0	0.5~1.0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6:40	01:12
		19:06	13:44
여수		02:04	08:33
		14:33	20:42

◇ 생활지수

감기	뇌졸중	미세먼지
보통	보통	보통

◇ 주간 날씨

5(금)	6(토)	7(일)
9/21	11/18	12/22
8(월)	9(화)	10(수)
13/14	7/14	7/12

전남대병원 부패취약분야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전남대병원(병원장 안영근)이 최근 부패방지를 위한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감사실 주관으로 열린 이번 교육은 전남대병원·화순전남대병원·빛고을전남대병원·전남대치과병원의 인사·계약·회계업무에 맡고 있는 직원이 참석했다. <전남대병원 제공>

덕영메디텍, 적십자 ‘쌈씨가 바른기업’ 가입



광주시 광산구 도천동에 있는 ㈜덕영메디텍(대표 강혜림)이 최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허정) ‘쌈씨가 바른기업’ 캠페인에 가입하고 매일 정기적인 기부를 하기로 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김기환·주명희씨 장남 현기군, 정철(호남대학교 홍보실장)·윤미숙씨 장녀 희운(남도일보 기자) 양-6일(토) 낮 12시 40분 광주 JS 웨딩컨벤션 3층 그레이스홀 062-385-7011.

알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 숙식제공, 주거지원 등 지원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청소년전화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일기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학대 신고=연계된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요일 오후 2시~5시 무료

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합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모집

▲플랫폼창업희망자 교육생 모집=스마트폰 사용가능자 수시모집, 5-6명 이면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플랫폼창업동호회 062-511-0030.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모집=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남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방아파트 후문 80미터 010-4622-7838.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시니어플래너지드사(자격반) 모집=사·군·구 지부모집, 한국지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010-5522-9700. ▲인생이모작 카운슬러 모집=인생2막 생애재설계, 은퇴 신중년 상담에 관심 있거나 교육경험이 있는 48-58세 남녀 모집, 실버채드, 치매예방 놀이,

노후생활 관련 강사 등, 한국50+ 희망발전소 010-2626-5018.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부음

▲고경석씨 별세, 고강인(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홍보팀 책임매니저)씨 부친상=발인 4일(목) 오전 8시 30분 광주시 서구 무진대로 975 광주 선한병원 장례식장 특실 062-361-1444.